

반년여 만에 36가족 탄생...동구 '피스멍멍' 눈길

작년 8월 블로동 33-4 운영 시작
3천여명 방문...입양 상담 78건
현재 7마리 새로운 인연 기다려
29일까지 '안락사 제로' 특별행사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조성한 '피스멍멍 유기견 입양센터'가 개소 이후 꾸준한 유기견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피스멍멍 입양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블로동 33-4에서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36마리의 유기견을 입양 보냈다.

입양 상담 건수는 78건, 누적 방문객은 3천47명으로 집계됐다.

피스멍멍 유기견 입양센터는 유기된 동물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하기 위한 희망의 공간으로 보호·교감 체험 공간과 놀이터, 입양 상담실, 반

려 교육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선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장기 보호되던 유기견 중 입양되지 않은 개체들을 집중 수용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관심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외부 행사 15건에는 총 128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온·오프라인 홍보 성과도 두드러지는데, SNS 게시물 총 조회수는 782만9천회,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는 2만628명을 기록했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8억7천900만원으로, 전국에서 8천927명의 기부자가 동참하는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현재 피스멍멍 입양센터에는 꽃병이, 누룽지, 포키, 밀키, 풀라, 소다, 팥떡이 등 7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조성한 '피스멍멍 유기견 입양센터'가 개소 반년여 동안 36마리의 유기견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센터 내부 모습. <광주동구 제공>

동구는 이러한 생명의 기다림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누기 위해 '국제 강아지의 날(3월23일)'을

맞아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와 함께 특별 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행사 기간 중 위기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에 10만원을 기부한 참여자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5천포인트가 제공된다.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는 동구가 위기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정기부로, 이를 통해 피스멍멍 입양센터 운영비 등을 충당한다.

이와 함께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된다. 국제 강아지의 날 기획전을 주변에 공유하고 추천을 받은 친구가 위기브에 신규 가입한 뒤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추천인에게는 1인당 2천포인트가 무제한 지급된다.

동구 관계자는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는 시민의 기부와 참여가 실제 생명을 살리는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제 강아지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유기견 보호와 입양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영 기자

서구, 광주 최초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

최대 8시간 대체돌봄 제공
휴식 활동비 10만원 지원
오늘부터 2회 신청 가능

광주 서구가 지역 자치구 중 최초로 돌봄 가족에게 휴식 활동비를 지원한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주민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을 23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공공돌봄 정책으로

돌봄자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착한서구, 따뜻한 하루'를 슬로건으로 돌봄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대체돌봄과 휴식활동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주민으로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3-4등급 대상자를 6개월 이상 돌보는 이가 해당된다.

신청자에게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1일 8시간의 대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문화체험·공연 관람 등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식활동비도 지원한다.

대체돌봄 서비스는 서구의 통합돌봄 사업 인력이 수행하며, 휴식지원 신청은 1년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 돌봄지원과(062-350-49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돌봄 강도와 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돌봄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돌봄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광산구, 상습 침수지 대대적 정비

우수기 전 31개 사업 집중

광주 광산구가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집중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습 침수 지역 재난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도시 구조와 치수 기능 전반을 개선하는 것을 올해 방재 핵심 과제로 삼아 하수도 정비와 방재 시설 확충 등 31개 재난 예방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다.

총 1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우수기 전 완료가 목표다. 주요 대상지와 사업 골자는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던 신창동 가구의 거리와 흑석사거리, 산월동 봉산마을 등 8개소의 상습

침수문제 해소다.

이를 위해 우선 저지대 배수 불량 구간에 160m의 우수관로를 새롭게 묻고, 기존 우수관로 개선과 빗물받이 확충을 통해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울러 오는 5월 완공을 앞둔 9천600여 규모의 우산지구 저류시설 조성을 비롯해 동곡배수펌프장 기능 보강, 서호·신기마을 간이배수장 용량 증설, 평동천 배수문 원격제어 설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 밖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 300개 확충과 노후 맨홀 35개 교체 공사도 빈틈없이 병행한다. /이옥근 기자

북구, AI·드론 중심 미래산업 육성 본격화

4차 산업 5대 분야 21개 과제 추진

광주 북구는 22일 "2026년도 4차 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5대 분야 21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으며, 총 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과제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북구는 올해 하반기 'AI 기본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 산업 거점 역할을 할 '전남대 혁신파크'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구로 지정받은 석곡동 일대 186㎡ 부지는 기업과 기관에 실증공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북구 드론공원에서 연명별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전개하고 전국 단위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청소년 AI 체험·코딩 스쿨'과 창의융합 코딩 교육을 운영하고 국가 AI 교육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계획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북구가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남구, 홈페이지 '인구정책 전담 플랫폼' 신설

부서별 94개 인구정책 취합

광주 남구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인구 정책 분야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전담 페이지를 개설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의 '우리 남구' 탭에 최근 '인구정책' 플랫폼을 개설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관련 정책이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각자에게 맞는 혜택을 찾는 데 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해당 플랫폼에는 94개 인구 관련 사업과 인구 정책 자료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시각 자료 중심의 내용이 정리돼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의 신청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링크도 제공한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보 소외 계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생과 양육 등 인구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회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